

제목 : 가막살나무열매 6고
20202198 양지우

1씬 - 절 앞 / 낮

절 앞에 서있는 한 여자. 절을 올려다보고있다.

여자
녹화 끊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끊지마. 얘기했던거 잊지 말고

- 하긴 하는데

카메라 너머 들고있는 사람의 목소리. 남자다.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 카메라를 움직여 여자의 앞으로 가 정면을 비춘다. 카메라 안으로 등장하는 남자의 손.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 안색 안좋다. 오늘은 그냥,
그제서야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

여자
응 하면 돼

지나쳐 카메라 밖으로 나가는 여자. 카메라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있다.
그때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여자
너 그냥 가

카메라 뒤돌아 여자를 비춘다. 여자의 뒤로 보이는 드넓은 절.
카메라 점점 여자에게 다가간다.

- 알겠어, 그럼 뽀뽀해

여자
응

카메라 너머 들리는 둘의 뽀뽀소리.

2씬 - 절 안 / 낮

들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찍는 카메라. 적막한 절. 넓은 숲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그때 멈춰서는 여자.
카메라 안으로 보이는 한 스님. 천천히, 밝게 웃으며 둘에게 다가온다.

스님
어떻게 오셨나요?

카메라 속 여자.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 아, 안녕하세요 스님. 대화를 좀 하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스님 흐뭇하게 웃다가 남자의 카메라를 바라본다.

- 아, 이건 저희끼리 그냥 기록용으로..

여자
안녕하세요

스님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와 스님. 눈이 마주친다.

여자 구역질하며 뒤돌아 뛰쳐나간다.

3씬 - 절 구석 / 낮

우에엑 소리. 연신 등을 두드려주고있는 남자.

남자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자
내가 녹화 끊지 말라고 했잖아.

여자 입을 닦고 돌아가려한다. 남자 붙잡아 안아버린다.

남자
너 지금 아파. 지금이라도 가자

여자의 웃음소리. 여자 품에서 빠져나온다.

여자
너도 궁금해서 따라온거 아니야?

마주치는 둘의 시선. 을 감싸고 있는 드넓은 숲.

4씬 - 절 누각 / 낮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에 맞춰 울리는

-삐릭-

카메라 속 스님을 걸고 보이는 여자. 긴장감이 흐른다.
여자 카메라를 보고 고개짓으로 어딘가를 획 가리킨다. 남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
대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스님이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스님의 평범한 대답. 여자 뚫어질 듯 대답하는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의 뒤 카메라를 들고있는 남자.
계속되는 대화. 긴장한 남자. 초조하게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 스님의 말을 잘라버리고

여자
그런 스님도 불경한 짓을 할 때가 있나요?

cut to.

침대 위 혈벗고있는 여자를 담고있는 카메라. 여자 카메라를 바라보고있지 않다.

- 사랑해

여자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카메라뒤 남자를 바라본다.

여자
너 내 이름 알아?

- 모르지, 안알려주니까

여자 카메라를 뺏는다.

-삐릭-

여자
재미없어

여자 영상을 삭제시킨다. 그리고 여자의 눈 앞에 나타난 한 사진.
그 스님.
한동안 바라보는 여자.

여자
스님도 섹스같은거 할까?

남자 여자의 말에 놀라 카메라를 뺏어든다

남자
못하지

여자
스님이랑 섹스하면 어떤 기분일까?

남자 여자의 말을 무시하며 뒤돌아 카메라를 정리한다.

여자
그 스님 알아?

남자
몰라

여자
근데 사진이 왜 있어?

남자 대답하지 못한다.

여자
난 아는데

남자. 여자의 말에 행동이 멈춘다.

여자
그 스님, 전자발찌 찼다?

뒤돌아 여자를 바라본다. 신난 표정의 여자.

남자
뭐?

여자
만나러 가자

남자
누구를, 이 스님?

여자
응, 웃기지않아? 스님이 전자발찌를 차고있어. 그럼 섹스를 한다는 거잖아.

남자
싫어

여자
그래? 그럼 나 혼자 갔다올게. 카메라만 빌려줘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다시 현재.
남자 스님의 눈치를 살핀다.

여자
스스로 말이에요. 어떤 불경한 짓을 저질러보고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를들면 섹스같은거요. 그럴 땐 어떻게 참으세요?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자 방언터진 듯 나불 댄다. 그리곤 스님의 발목 바짓단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걷어올려버린다.
남자의 카메라 여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다급하게 여자의 행동을 쫓는다.

카메라 속 보이는 스님의 험한 발목

정적

여자
와 씨발 이걸 푸네?

여자 바로 반대쪽 올리려는데 손으로 막는 스님.
여자를 바라본다.

스님
제 발목은 왜 찍으시는거죠?

남자의 카메라 허둥지둥 여자를 쫓는다. 스님 뒤돌아 카메라를 바라본다.

스님
카메라 꺼주세요

당황한 남자. 아랑곳않고 스님의 손을 뿌리치는 여자. 연신 웃으며 스님을 몰아붙인다. 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있자, 스님 남자의 카메라를 뺏어든다.

-삐릭-

5씬 - 다시 절 구석

계속 웃는 여자. 계속. 계속 웃으며 박수친다.

남자
봤지? 없다. 이제 가자

여자
웃기다 저 스님. 당황한거 봤어?

남자
가자

여자
아직 반대쪽 못봤어

남자
없어

여자
있어

남자
없잖아!

여자
있어

남자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저 스님 알아? 모르지, 어? 모르잖아!

여자
내가 채웠거든

정적.

남자
뭐?

여자
숫, 비밀이다. 그니까 넌 그냥 어떻게든 찍어. 우린 이미 기회를 한번 날렸어. 내가 복불복에 실패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여자)
꼭 따서 난 여기 불을 지를거야, 그게 내 꿈이야.
도와줄거지?

남자 대답이 없다. 여자 남자를 와락 안아버린다. 벌벌 떠는 여자.

여자
사랑해. 고마워. 너밖에 없어.
(사이)
그니까 녹화 끊지마.

6씬 - 다시 절 / 낮

스님과 대화하는 남자. 여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바라보고있다. 대화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원한 바람소리.

여자의 시선. 스님의 얼굴이 점점 클로즈업 된다. 스님과 눈이 마주친다.

다가오는 스님.

여자의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스님
괜찮습니다.

넘어가는 화면. 여자의 얼굴.

스님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하지요. 그럴때는 사과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는 화면. 스님의 얼굴.

스님
그렇지 않나요? 방금 이 남성분처럼요

남자를 향해 웃음짓는 스님.
남자 마주선 스님과 여자를 바라본다.

스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여자.
스님도 웃으며 마주한다.

여자
죄송합니다

스님의 웃음.

스님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둘을 바라보고있는 남자.

7씬 - 절 / 낮

걷는 두 사람. 의 모습을 담고있는 남자. 스님은 앞을, 여자는 스님을 바라보고있다.
남자 카메라를 스님의 발목쪽으로 옮긴다.

여자
절이 참 아름다워요

스님
네, 감사해요. 자연과 하나되어 참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죠

세사람의 정면 풀 샷. 대화하며 걸어가는 둘 뒤로 우스꽝스럽게 어떻게든 발목을 찍어보려는 남자가 보인다.

갑자기 멈춰 선 여자.

여자
저는 이 나무가 좋았어요

같이 멈춰서는 스님. 여자의 시선을 따라 나무를 바라본다. 붉고 작은 열매들이 열려있다.

스님
오신적이 있으신가요?

스님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
아뇨, 이 나무요. 유명하잖아요 가막살나무. 이 열매랑요

남자의 카메라 아슬아슬 발목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스님
저도 좋아해요 이 나무. 특히 열매가 참 좋아요 그렇죠?

또 한번 마주치는 둘의 시선. 그때 스님쪽으로 뛰어오는 한 동자승. 스님 동자승의 어리광을 받아준다.

여자
동자승은 전부 스님이 되나요?

남자 카메라. 줌을 확 땡겨 발목에 초점을 맞춘다.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스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고 나서는 나가는 아이들도 더러 있지요

여자
(웃음) 집 나간 아이네요, 아 절 나간 아이인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여자
제가 나갔거든요, 절

바람소리.
둘의 시선이 마주칠듯,

남자
보인다!

우당탕! 우스꽝스러운 자세덕에 자기 발에 걸려 꼬꾸라져버린 남자.
넘어진 남자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스님. 남자에게 달려간다.
아랑곳 않고 멈춰 서 스님을 바라보는 여자.

여자
전 가을이 참 좋았어요

스님 남자를 일으킨다. 여자를 바라보며

스님
우선 와서 이분 상처좀

남자 무릎이 다 까졌다. 스님 남자를 일으키려 부축하며 상태를 묻는다.

여자
착한일을 많이하면, 상으로 가막살나무 열매를 따주셨는데

남자 발목이 빠였는지 일어나지 못한다.

여자
달아보여도 사실 엄청쓰거든요

스님
저 붙잡고 일어나보세요

여자
근데 그냥 제가 먹으면 스님이 좋아하셔서

여자의 시선 끝 스님이 보인다.

넘어진 카메라 속 담기던 여자의 발치

“기억 안나세요?”

지 | ㅈ직.

카메라 꺼져버린다.

8씬 - 절의 한 방 앞 / 밤

어느새 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절의 한 방 안 구석. 여자가 웅크려있다. 남자 반대쪽 구석에서 카메라를 고치고있다.

남자
미안해

여자
고쳐

남자
..없었던 것 같아

여자
고치라고

남자 웅크린 여자를 향해 뺨 발목을 질질 끌며 다가가 꼬옥 안아준다.
표정없는 여자.

남자
있을리가 없으니까.

여자 고개를 쳐들어 남자를 바라본다.
비웃음.

여자
보여줘.

남자 대답하지 못한다.

여자
그냥 고쳐

쏟아져 내리는 빗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 안. 남자를 등지고 누워있는 여자. 삐걱 삐걱. 남자 계속 카메라를 고친다.
그때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다.

9씬 - 꿈 / 아침

환한 가을 햇살. 붉고 작은 가막살나무 열매가 가득 열린 절의 한 뒷편. 스님이 열매를 따고있다.
그때 누군가를 발견한 듯 환하게 웃으며 열매를 들어올리는 스님의 얼굴.

10씬 - 절 한 가운데 / 새벽

어두컴컴한 새벽. 비가 쏟아져 내리는 광활한 절 한 가운데.

여자 눈을 뜨니 빗 속 한 가운데 서있다.

한참을 서있다가 어디론가 걸어간다.

11씬 - 절 대웅전 (부처를 모시는 곳) 앞 / 밤

pov. 쏟아지는 비. 대웅전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스님의 염불외는소리. 점점 커진다.

문이 열리고 보이는 스님의 뒷모습.
스님의 앞 자리한 커다랗고 근엄한 불상.
스님에게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 멈추지 않는 스님.

한참 후 뒤돌아보는 스님.
스님이 바라보고있는 카메라. 그 뒤 남자다.
스님 남자의 다리를 바라본다.

스님
다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남자
역겨우니까 모르는척 그만하세요

정적.

스님
그래주길 바라신거 아닙니까

남자
인애는 몰라요.
아무것도.

스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시는군요

남자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스님
무엇을 말하면 될까요

남자
도대체 무슨짓을 하셨길래 그래요?

스님
인현스님

남자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스님
저 아이가 이렇게 물었죠. 불경한 짓을 해본 적이 있냐고

정적.

스님
사람이라면 해본 적이 있을테지요.
없다고는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목을 보여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남자
이것도 알고계시네요

스님
이 영상을 저 아이도 보겠군요

남자
가장 봐야 할 사람이니까요

스님
그렇다면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웃음)
그 카메라가 모든 진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썸 - 절의 또 다른 방 / 새벽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안으로 여자가 들어온다.
들리지 않는 빗소리.
여자의 시선 - 잠들어있는 스님의 얼굴. 몸. 발끝에서 시선 멈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여자. 발치 이불을 바라보다가.
건어올려버린다.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는 여자. 다시 앞을 보니

스님의 얼굴
스님. 어느새 눈을 뜬 채 여자를 바라보고 앉아있다.
스님 여자에게 다가온다.
천천히. 다가온다. 천천히. 빨라지는 심장고동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둘의 거리.

스님의 코가 여자의 코에 닿았다. 여자 눈을 질끈 감는 그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삐릭-

녹화소리와 함께 다시 들리는 거센 빗소리.

동자승. 시선을 핵 돌려 카메라를 바라본다.
성복을 입고 머리가 밀려있는 동자승. 잠들어있는 스님의 위에 올라 타 앉아있다.

그 모습을 찍고있는 남자의
카메라 안.
여자. 흠뻑 젖은 채 잠들어있는 스님의 위에 올라 타 앉아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 뚝.

이내 시선을 돌려 다시 스님을 바라보는 동자승.
잠들어있는 스님.

스님에게 입맞춤하는 동자승.

아니 카메라 속 여자.

녹화를 멈추지 않는 남자.
남자 천천히 시선을 올려 실제 모습을 바라본다.

여자.

“사랑해요”

녹화를 멈추지 않는 남자.

여자
스님은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잠들어있는 스님의 얼굴.
그 위로 떨어지는 여자의 눈물.

녹화를 멈추지 않는 남자.

13썸 - 절의 한 방 앞 / 아침

들려오는 새 소리. 바람소리. 너무나도 평화로운 절 안.
마루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전체삭제 버튼을 눌러버린다.

그때 방 안에서 여자가 나온다.
마주치는 둘의 시선.

남자
고쳤는데, 볼거야?

두사람의 긴 침묵

여자
됐어

그때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스님. 손에는 붉은 가막살나무 열매가 가득 있다.

스님
다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대답하지 않는 남자. 스님 남자를 바라보며 웃음짓는다.
여자 스님의 손 위 열매들을 바라본다. 시선을 눈치 챈 스님

스님
아침에 동자승들과 땀습니다.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 가져가시겠어요?

여자. 스님의 앞에 멈춰 서 열매를 바라본다.
그리고 지나쳐 걸어간다.

스님 뒤돌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스님
인애스님

여자 뒤돌아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
좋은 친구가 생겼네요

먼 거리를 두고 서있는 둘.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본다.

여자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바람소리.
웃음짓는 스님.

스님
인애스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자의 시선. 멀리, 자게 보이는 스님. 뒤로 광활한 절.
여자 뒤돌아 절을 빠져나간다.

스님앞에 선 남자. 스님 손에 들린 가막살나무 열매를 한움큼 쥐어든다.

스님
너무 많이 드시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남자
괜찮아요

광활한 절. 그 속에는 스님. 뒤로한 채 절을 빠져나가는 여자.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

fin.